

네가 되는 시간
클로이 X 이블린, 카스틸로.

팩 돌아갔던 고개가 식은땀과 함께 뻗뻗이 굳어 제자리를 찾는다. 제아무리 보드라운 커튼을 달아두었대도, 열려둔 창문 아래.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은 숨길 수 없다. 사락이는 소리가 들리면 이블린의 머리가 다시금 쭈뼛이 서길 반복한다.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어도 좀처럼 안심할 수 없다.
.....그래. 정체를 안대도 좀처럼 안심할 수 없는데, 당신은 어쩌서 나에게.

콜린 카스틸로. 그러니까 이블린의 허울뿐인 남편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쓸데없이 긴 식탁 모서리에 점처럼 구겨 앉아 사용인들의 시선을 묵묵히 건디는 것도, 호화롭게 준비된 정찬을 욕이듯 입에 밀어 넣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었다. 체기를 달고 사는 것을 보아 하면 속내는 영 그렇지 않은 듯했으나.

너른 집은 수많은 사용인들로 복직일 법도 했지만 그들은 항상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교육이라도 받은 양 굴었다. 그 덕에 이블린은 언제나, 버려진 자택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마치— 유령처럼.
물론 실상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고요하다. 그리고 고요란 이블린에게 평안이나 휴식 따위보다는 두려움의 척도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커튼 곁이 부서지는 소리에 가빠진 호흡은 좀처럼 돌아올 생각을 않는다. 이블린은 메이드가 취침 전 가져다 놓았던 헤팅 위 물잔을 다소 빠르게 들이켰다. 후작의 부인 치고는 꽤나 경박스러운 법한 모양새였으나 이블린은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온몸을 이렇게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도 비좁은 공간에 갇힌 듯한 숨은 터억 끊어지기 일쑤다. 이블린의 몸은 나날이 말라가고 있었고 그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젤에 올라가 있던 캔버스가 마룻바닥을 향해 툭 떨어진다. 평직물 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유화 물감의 자국만이 가득하다. 이따위 것을 그림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 이블린은 초점 없는 눈으로 캔버스를 응시했다.
.....무엇이었더라. 나는 무엇을 그리려고 했더라.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렇게.

이블린은 어느 순간부터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었다.

마치 사람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 한 것처럼.

—

“이블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식사를 깨끗이 비우시고, 평소와 같은 시간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히 가주님을 신경 쓰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좀 서운하군.”

콜린이 빙글거리는 낫으로 의자를 반쯤 돌렸다. 폭 기대어 누운 등받이가 위로 넘어갈 듯 젖힌다. 늘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용인의 보고가 믿을 바가 되지 못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그보다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지가 우선인 이들이었으므로 그를 세심히 보살필 리 없었다. 콜린은 손끝으로 제 턱을 톡톡 건드리다 여측 앞을 지키고 있는 사용인에게 손짓했다.

“나가 보시죠.”

“네, 가주님. 편안한 밤 되시기를.”

저택과 함께 늙어간 집사가 콜린을 향해 허리까지 꾸벅 숙이고는 걸음을 옮긴다. 이블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 한 지 나흘째가 되는 밤이었다. 딱히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콜린은 실제로 여러 대외적인 일로 바빴고, 좀처럼 휴식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콜린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자 또한 아니었기에.

자신이 돌아올 시간이면 이미 잠에 빠진 이블린을 깨워야 하기도 했거니와, 콜린이 보기에 아직은 그에게 손을 내밀기엔 이른 시기였다. 이블린이 잘 견뎌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리 쉽게 부서질 여자는 아니라 보였지만서도. 어둡다 못 해 달빛이 보이지 않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콜린은 꽤나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조금씩

천천히

콜린은,

이블린을 완전히 제 손에 거머쥐게 될 것이다.

그 밤도 오늘처럼 황망히 까맣다.

남편이 죽었다지.

콜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 이따금씩 일과 중간중간 떠올리며 이블린을 그리기도 했다. 그래, 이블린이 남편과 사별한 직후 처음으로 만났던, 어느 사고 파티를. 콜린은 본디 주위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깨끗하게 자신의 세계를 지킬뿐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이블린 그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과 귀에 한순간 쏟아내린 것은. 콜린은 조용히 벽에 기대선 채 쥐고 있던 와인잔을 느릿하게 돌렸다. 그리고 그의,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의문스러운 눈길은 파티가 끝날 무렵까지 내내 이블린 그레이만을 쫓고 있었다.

부드럽게 흩어지는 물결의 금발에, 딱딱하게 굳은 녹빛의 두 눈.

남편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콜린은 깨달았다.

그리고 찰나에,

아.

이 감정은—

사랑?

지배욕이라는 것을.

콜린은 책상 위에 팔꿈치를 두고 턱을 껴 완전히 눌러 앉았다. 만났다는 표현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군. 이블린은 그 파티에서 내 꿈무늬도 보지 않았을 텐데. 작고 실없는 웃음이 입가에 매달렸다가 금세 사라진다. 이제와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미 판은 깔렸고, 자신은 이곳에 앉아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이블린을 낚아채기만 하면 될 터다. 콜린은 상당히 결과론적인 사람이었으며 그것은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블린을 제 품에 앉혀두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이였다. 그것이 이블린을 묶고 죄어 생채기를 나게 하더라도.

제 손으로 남편을 죽이고 미망인으로 위장한 여인이라.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겠는가.

콜린은 주인 잃고 떠도는 저 아름다움의 표상을 저택에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콜린은 이블린을 가지고 싶었다. 어떠한 형태라 하든. 껌데기뿐인 소유여도 상관없었다. 진심이 배제된 채 빠르게 회전하는 머리는 콜린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다. 콜린이 ‘되기로’ 한 것 역시 모두 콜린의, 그러니까—클로이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으니. 이블린을 갖기에 콜린이라는 이름과 그에 주어진 명예는 더할 나위 없는 자원이자 수였다.

클로이는 당장에 이블린 그레이의 가문에 접근해 신뢰를 쌓아 갔다. 카스틸로 후작 가문의 사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은 드물었기 때문에, 클로이의 계획은 녹은 물처럼 흐르기만 했다. 두 번째 결혼마저 집안의 강요에 의해 이뤄질 참이자 이블린은 모든 게 지긋지긋해졌으나, 당장에 그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심지어 이블린은 누군가에게 애뒤틀 감정을 가지는 일조차 드물었으므로 더더욱. 그래서 이블린은, 두 번째 결혼 역시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지을 작정이었다. 이블린은 광이 적은 눈을 하고서 몇 개 없는 짐을 싸 곧장 클로이의 저택으로 들어왔다. 클로이에게로. 들었다.

쿵,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이블린은 잠에서 깨어났다. 뒷맛이 나쁜 꿈을 꾸는 것도 같은데 과음을 한 것마냥 내용이 기억나지를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얼굴 밖에, 아니, 이제는 얼굴도 제대로 떠올릴 수 없는 콜린 카스틸로. 악몽을 꾸었다면 그가 모든 장면의 주연일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니까 이블린은 두 번째 결혼 역시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작정이었다.

콜린이 유명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기요. 이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마담.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으시는데 뒷조사는 뭐 하러 맡기셨습니까.”

“.....그럼 나더러 지금 이만 걸 믿으라고요?”

콜린 카스틸로. 37세. 1남 1녀 중 장남. 동생은 몇 해 전 사고로 사망.

현재 핀란드 근교의 별장에서 탕아 생활 중으로, 가족들의 오랜 골칫거리.

R이라는 가명의 정체 모를 남자가 가져온 정보는 실로 방대했으나, 몇 자로 요약해 보자면 이것이 전부였다. 이블린은 주변을 의식하며 머리 위 책이 넓은 모자를 더욱 폭 눌러 쓴 채 남자가 가져온 종이들을 신경질적으로 휘저어댔다.

“콜린 카스틸로는 저와 결혼해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핀란드라뇨. 동명이인이 아닌가요? 저는 제 남편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거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동명이인은 모두 걸러냈고, 말씀해 주신 영국 카스틸로 후작 가문의 콜린을 찾아본 것이라니까요.”

이블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 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남자의 말은 신뢰가 가기는커녕 이해조차 잘 되지 않는 문장의 나열들일 뿐이었다. 그럼 나는 콜린 카스틸로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비록 같은 방을 쓰지는 않았지만 어젯밤 나란히 같은 저택에서 잠들었던 콜린 카스틸로는, 있었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란 말인가. 어순이 엉망으로 적힌 문장을 애써 이해해 보려는 것처럼 이블린은 인상을 찌푸린 채 종이 위에 그려진 콜린 카스틸로의 초상화를 들여다보았다. 순간 숨이 턱 막힌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테다.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야. 이 사람이 콜린 카스틸로라고? 이블린은 아직까지 남자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으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다. 영국, 카스틸로 후작 가문, 콜린. 그는 분명 한 사람뿐이었고 R은 이블린이 수소문 끝에 몰래 찾아낸 이 나라 최고의 정보상이었다. 대번 정신을 놓칠 뻔한 이블린이 떨리는 손으로 겨우 돈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남자는 돈뭉치를 받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지만 이블린만은 것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그럼 지금 카스틸로 저택에 머물고 있는 이는 누구란 말인가. 이블린은 목덜미까지 뻐쳐오는 소름을 감당해 내기 힘들어 제 온몸을 팔뚝으로 힘껏 껴안았다.

“.....여,여기. 물을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벌벌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이블린은 겨우 물 잔을 받아 들었다.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반대쪽 손으로 컵 아래를 받치고 있어야만 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저와 제 가문을 상대로 거대한 속임수를 쓴 것이다. 그러나 이블린은 평소와 다르게 신경질을 낼 수 없었다.

잡아먹힐 듯한 두려움. 두려움이, 공포가, 그의 폐부를 납작이도 짓눌렀기에.

조금 더 일찍 이 사람에게 대해 알아봤다면 도망칠 수 있었을까. 아니, 그전에 엮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결혼식을 올린 지 육 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야 콜린 카스틸로에 대한 뒷조사에 생각이 미친 것이 통탄스러웠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블린은 안다.

만일 이를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라도 자신은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 없는 확신이 들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은 언제나 정답에 가까웠고, 이번에도 틀림없었다.

“.....에일리.”

“네, 마님. 부르셨어요.”

“이 집에 주인은 몇이 있죠?”

“네?그야, 가주님과 마님, 두 분이시지요.”

이블린이 꺾 쥐고 있던 포크를 시끄럽게 내려두었다. 가히 그 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제 막 신참 티를 벗어낸 메이드 에일리마저도 심상치 않음을 느낄 정도였다.

“이 집에 주인이 둘 있다고?”
“.....제,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라도.....”
“이 집에 너희 말고 사람이 몇이나 있냐는 말이야!”

이블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어릴 적부터 예절 교육을 단단히 받아온 터라 여간해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이블린이었다. 에일리는 어지간히도 놀란 모양이었다.

“.....마님.”

늙은 집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블린은 이제 그를 거의 노려 보았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것 같군요.”
“.....”
“아무래도 어젯밤 잠을 설치신 모양입니다.”

치맛자락을 쥔 이블린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허옇게 질린 상태였다. 그 무렵부터 콜린 카스틸로는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어졌다. 언제나 제가 잠자리에 든 후 집에 들어왔다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는 사용인들의 이야기로 그를 전해 들을 뿐이었다. 이블린에게는 뜬소문이나 다름없는 말들.

내가 헛것과 함께 지낸 거야.
모두 내 망상이야.
그럼 여긴 어디지? 이 사람들은 나를 왜 가뉘놓고 있지?
나는 그를 본 적이 있기는 하던가?
그는, 누구였지?

내가 아는 콜린 카스틸로는—
·
·
·
유령에 불과하다.

이블린은 몇 날 며칠이고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다. 종내에는 유령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곳에서 저를 내보낼 것을 소리치며 요구했다. 그때마다 사용인들은 이블린의 신경쇠약을 이유로 들며 낮잠을 청하고는 했다. 이블린은 무엇이 무엇이였는지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의 끈이 가늘어진 상태였다. 평생 그려오던 이블린의 그림은 처음으로 비뚤어지고 있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더라. 어깨가 이렇게, 머리가 저렇게. 캔버스 위 흐릿하게 비틀린 형체를 보던 이블린이 붓을 바닥에 던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스스로가 죽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

늦은 식사를 겨우 마친 뒤 클로이는 계속해서 복도를 서성였다.

마님의 꿈새가 이상하시더군요. 콜린 도련님에 대해 무언가를 찾아보신 것인지, 이따금씩 ‘콜린 카스틸로가 유령이 아니냐’는 질문을 사용인들에게 외고 다니십니다.

일났군.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 사용인들의 입을 단단히 단속해두긴 했지만, 생각 보다 이블린의 충격이 심한 것이 문제였다. 상태가 어쩔지 잠시간 살펴보고 싶었으나 이블린의 잠귀가 밝다는 사실을 결혼 전 미리 알아두었기 때문에 클로이는 선불리 그의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해서라도 내일은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게 낫겠어. 소유하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늦은 침음 끝에 발길을 거두려는 순간,

“.....콜린?”

이블린의 방문이 열리고, 이제는 나뭇결처럼 짹 짹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클로이는 곧장 뒤돌아 이블린을 마주했다. 푸석푸석해진 채 뽀얀 머리와 열게 팬 볼, 툇 툇 같은 피부와 핏기 없는 입술까지. 아. 아름다운 나의 장식이자 피조물이구나. 이블린 카스틸로.

“이블린. 꼭 자지 않고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그렇군요. 하고 있는 일이 요즘 가장 바쁜 시기라. 미리 말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잠시간 공중에 시선을 떠돌리던 이블린이 덩석, 클로이의 팔을 잡아챘다.

“.....잡히네.”

하하. 손에 쥘 수 있네. 내가, 당신을. 헛소리 같은 이블린의 말이 조용한 복도에 흘렀다. 클로이는 아주 천천히, 낡아빠진 모양새의 이블린을 품에 안아주었다. 안쓰러움에 분명한 목소리가 흘렀다.

“이블린, 메이드들에게 들었습니다. 요즘 톡 잠을 자지 못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이라면 내게 말해주세요. 시간을 내보겠으니.”

이블린에게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쯤, 입을 당겨 크게 웃으며.

“.....콜린. 콜린인가요.”
“.....”
“콜린이군요. 콜린 카스틸로.”

클로이는 답하지 않았다.

스며든다. 이블린이 서서히 제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얼마나 고대해왔던가. 클로이는 지금이 바로, 이블린을 완전히 가둘 최적의 타이밍이라 생각했다.

“대답해요. 콜린 카스틸로. 그게 당신이 맞나요?”
“그럼, 당연하지요. 콜린 카스틸로가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이블린.”
“콜린 카스틸로는 핀란드 근교의 별장에 있다더군요. 당신과 다른 얼굴을 하고.그럼 눈앞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클로이는 다시금 침묵을 지켰다.

“여전히 말해줄 생각이 없나 보네요.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죠? 내가 모른다면 끝까지?”

이블린이 클로이의 팔을 왼 손에 힘을 더했다.

“이렇게 잡히잖아. 유령이 아니죠.”
“.....”
“당신, 유령이 아니죠. 대답해 주세요, 제발.”
“.....”
“이제 당신이 누구라도 상관없어. 내가 미치거나 죽은 게 아니라고만 말해.”

클로이는 조용히 이블린의 등을 어루만졌다.

“차라리 당신이 클로이 카스틸로이고, 쓰레기나 다름 바 없는 오라버니를 대신해 콜린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낫겠어.”

클로이가 품에서 이블린을 놓아주고는, 멍한 눈을 마주했다.

“.....됐습니다. 헛소리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한번 지껄여보았을 뿐이지요. 당신의 반응이 궁금해서. 보나 마나 자신이 콜린 카스틸로라는 거짓만 늘어놓겠지만.”

손에 닿는다. 고급스러운 천 아래 피부의 감각이 느껴졌다. 유령은 아니겠지. 유령이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이블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여전히 의문의 응어리 안에서 발버둥 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블린은 웬지, 흥가분했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스스로도 있었다. 마실 물을 더 가져오려던 참이었는데 이제는 목도 마르지 않다. 이블린은 다시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려, 문고리를 손에 쥐었다.

“이블린, 내 이름을 다시 한 번만 불러주겠습니까.”

똑, 하고 이블린의 움직임이 멈춘다. 경직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클로이 카스틸로. 불러 보십시오.”

들고 있던 잔이 돌의 발밑에서 산산이 흩어진다. 동시에 콜린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고, 숨어있던— 흑색의 장발이 허리까지 찰랑이며 내려왔다.

이블린은 그제야, 사람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알 것도 같았다.

—

두 번의 노크 소리가 들려오자 이블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답은 굳이 하지 않는다. 들어가도 되겠냐는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없이 노크만 해오는 사람은 그뿐이니. 클로이 역시 답을 기대하고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블린. 별이 좋네요.”

네, 별이 좋아요. 이블린은 그간 우중충하게 방을 가리던 커튼을 모두 걷은 채 창가에 앉아 유화를 그리고 있었다. 클로이는 잠시 문간에 서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가, 이블린의 방을 둘러보았다. 벽을 따라 무수히 늘어진 캔버스들. 클로이는 이블린에게 그림에 대해 물은 적이 없었고, 이블린 역시 그에게 답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벽의 그림들은 변하고 있다. 형태가 잡히고, 색채가 더해진다. 유령에서 사람으로.점점. 그러니까, 점점.

생각해 보면 나는 망가졌을 때에도 줄곧 당신만을 그리고 있었다.

이블린이 손을 내밀었고, 조금 차갑지만 분명한 온도가 느껴지는 클로이의 손이 그 위에 올랐다.

매일 빌었습니다. 당신이 그 누구라도 좋으니 살아있는 것만이기를.

나는 바랐다. 이블린, 네가 스스로 택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날을.

꿈이나 허상 따위가 아니다. 카스틸로는 이곳에 존재한다. 그것이면 다 될 것 같았다.

당신이 제 발로 이 자택에 남는 것을 소원하기를.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도 속아넘어갔을 것임을 예감했던 것처럼. 나는 언젠가 당신을.

— 비로소 나의 유령이 온전한 네가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